

어린이 발표



알리츠비에타 케이, 7세,
체코공화국 즐린 지역



멋진 선물이예요!

테레즈카 제이, 6세,
체코공화국 즐린 지역



휴가 때 해변에서 만나서 친해진 한 친구가 있어요. 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

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.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. 나호미 케이, 3세, 콩고민주공화국 카사이센트럴주



저는 사람들을 꼭 안아 주는 걸 좋아해요.

이선 엘, 6세, 프랑스 욱시타니



차이 절의 정원을 위해 우리는 이걸 만들었어요!

아브나히아, 5세, 하치엘 지, 7세,
푸에르토리코

저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.

버를린 엔, 8세, 필리핀 타틀라크



저는 어릴 때 물을 무척 무서워했어요. 모두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독여 주었지만,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선교사님들은 예수

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.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두려움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, 저는 정말 기뻐요.

사라 티, 11세, 프랑스 일드프랑스